

1.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완성된 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과,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긴 믿음의 고백이 오랜 세월을 걸쳐 쌓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성경의 출발점은 글이 아니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일하셨고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경험하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질문과 고민,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식탁에서, 광장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록한 믿음의 증언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실패를 숨기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사람을 미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까지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도 사라진 그때 절망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그때 그들은 이미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와 기록들을 모으고 정리하며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어떻게 출애굽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광야와 가나안에서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기며 그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바울의 편지들은 처음부터 성경이 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기록한 목회적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단순한 인간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복사되어 여러 지역으로 전달되었고, 세대를 거쳐 읽히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문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문서들을 오랜 시간 분별했습니다. 이것이 정경(Canon) 형성 과정입니다.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여러 문서를

읽고 가르치며,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지, 여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분별했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인정된 문서들이 오늘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공동체가 분별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록한 믿음의 응답이 만나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수천 년 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읽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용서해 보고, 사랑해 보고, 정직하게 살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디뎌 볼 때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 흔적이며,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오늘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누군가 억지로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방향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셨다고 느꼈던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 _____

-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성경의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나의 삶(가정, 일터, 교회 등) 속에서 마주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누어 보세요.

→ _____

-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기억해 냈습니다. 내 삶에 큰 흔들림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를 붙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과거의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 _____

- 나에게 특별히 위로나 도전을 주었던 성경 말씀이나 구절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 _____

-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말씀을 따라 용서해 보고, 사랑해 보고, 정직하게 살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용서, 사랑, 신뢰 등)으로 옮겨보고 싶은 말씀이나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서로를 세워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